

2015년 11월 22일(주일) 야고보서(5) “믿음을 가졌으니 차별하지 말라”(약 2:1-9)

<도입>

동영상: 애런과 로버트의 팔씨름 이야기 - 애런에게서 인간 본성 속에 있는 하나의 귀한 속성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동류 의식입니다. 애런은 동류 의식을 실천했습니다. 동류 의식이란 ‘자신이 어떤 사람이나 계층과 같은 무리라고 생각하는 의식’입니다(together spirit, consciousness of kind). 우리는 이 동류 의식을 전체 인간에 대한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늘 이슈가 되는 계층 간에 또는 여러 부류 간에 불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늘 본문은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1] 공동체의 생명이 깨어지는 야고보 교회.

야고보는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난한 자에 대한 차별의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안타까움의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한 불화가 아니라 인간의 진정한 인간 됨을 깨어버리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인간 됨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우리)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됨의 축복을 보장받은(엡 4:1-3) 교회에서도 그것이 깨어지면 인간의 축복의 속성이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 안에는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싶어하고, 또 맺어진 관계를 더욱 풍성하게 갖고 싶은 바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사람 싫은 사람을 구분합니다. 나는 마음의 무장을 해제하고 과연 몇 사람 정도를 마음 깊이 받아줄 수 있을까요? 친화력과 배려심이 좋은 사람이어서 수 십 명을 받아줄 수 있을지라도 상대를 존중하고 높여주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가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타락한 죄성이 사람을 멸시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인간의 동류 의식을 갖지 못합니다. 그것은 겸손을 잃었다는 이야기입니다(참고. ‘human’과 ‘humble’의 어원은 humus(흙)). 교회는 인간의 죄성을 극복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일을 믿고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아픈 마음을 가지고 복음의 기초와 핵심을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2] 그리스도의 믿음을 배우고 가졌으니...

1 절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예수님이 보이셨던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마음과 자세, 사셨던 십자가의 삶의 방식, 즉 한 마디로 **예수님의 진짜 믿음을 배웠고 얻은 존재**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는 존재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뜻이며, 궁극적으로 그분 수준으로 장성하도록 부르심을 받습니다(엡 4:13). 그런데 야고보 교회는 지금 그 길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정도에서 이탈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선 죄인, 세리, 창녀와 같이 거칠고 무례한 가난한 자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교회는 부자의 행색을 한 사람은 좋은 자리에 앉히고, 가난한 자들은 거기 서 있든지 내 발 아래 앉으라고 했습니다.

이런 행위를 야고보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 (1) 7 절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를 부르신)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차별을 이웃 사랑의 원칙으로 연결합니다.
- (2) 9 절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구약 성경의 율법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네 이웃을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가장 상위법, 최고의 법이라고 말합니다(8 절).

[3] 복음 안에서 가난한 자의 격상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을 늘 기억!.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이들이 왜 복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5 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시라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 예수께서 오셨을 때, 복음의 역사는 먼저 가난한

자들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늘의 아버지를 소개했을 때 받아들이고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지도자들이나 부한 사람들(기득권층)보다 훨씬 더 잘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의 없고 부도덕한 사람들 같이 보였지만 마음 깊이 높은 영적 축복을 얻기를 갈망하며 의지했습니다.

교회에서 복음을 아는 부자들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먼저 도우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그들을 위해 도왔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자신이 기꺼이 동참하는 것을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공동체는 모두 믿음의 부요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난한 자가 격상된 예는 교회사에는 수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대표적 인물은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모두 얼마나 믿음에 부요한 자가 되었고 오고 오는 세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사랑과

그럼 우리 주변에 누가 가난한 자인가? 절대 기준은 없습니다. 나보다 상황이 안 좋은 사람(돈, 건강, 직위), 또는 인생의 어떤 소명의 목표를 향하여 과정을 걷고 있는 사람, 즉 학업이나 연수나 훈련 중에 있는 사람들... 우리 교회 많~습니다. 이 사람들을 도울 줄 알아야 하며 이들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것을 기뻐할 줄 알아야 합니다. 복음적 교회로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려면 이것을 배우고 행해야 합니다. 정말 성공한 교회입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이 잘 되고 복 받는 것을 보고 기뻐할 줄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성품과 가치관이 이미 하나님 나라의 사랑에 뿌리 내려서 예수님의 성품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 나라 안에서는 서로가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유업의 상을 받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해줍니다. 이것이 가능해지는 이유는 거기서는 우리를 넘보는 죄의 세력이 없고, 또 내게서 자기중심적인 죄의 성향들이 짝악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나의 형제 자매들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나라입니다.

<맺음>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를 존중할 뿐 아니라 높여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인 줄 알고 자발적으로 하게 됩니다. 주위의 가난한 자들을 높여 줌으로 참 영광의 길을 함께 격려하며 정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015 년 11 월 22 일(주일) 야고보서(5) “믿음을 가졌으니 차별하지 말라”(약 2:1-9)

- 우리는 종종 나보다 상황이 좋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도와주려고 애씁니다. 이들이 자신들의 인생에서 큰 축복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나보다 잘 되는 것까지도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나’로부터 자기중심성이 극복되어야 합니다. 무엇 하나 비교하지 않는 틀과 기준이 없는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나의 바른 영적 추구와 결단, 그리고 지금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1)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야고보 교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심각한 문제인지 말해봅시다. 설교 요약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복음이 약속하고 추구하는 것이 공동체적으로 무엇인지 알고 따라야 하겠습니다.

(2)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 더 합당한 모습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비추어 무엇이 추구되어야 합니까? 공동체를 돌보는 목회적 시각에서 함께 나누어 봅시다. 공동체 성숙을 알게 하는 어떤 지표나, 사인이 있다면 말씀해 보십시오.

‘시간을 더 잘 지켜야 한다, 봉사를 더 많이 해야 한다, 청결하게 살아야 한다... 등등’의 일반적 도덕 강조가 아닌 차별 문제와 관련하여 과연 나의 어떤 내면의 문제가 극복되어야 하는지도 말씀 나눠 봅시다.